

■ 베이징올림픽 성화 서울 봉송

22km 구간 80여명 나눠 달려

88년 '굴렁쇠 소년' 마지막 주자...성화 오늘 평양으로

사상 유례없는 '수난의 길'을 걷고 있는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27일 서울에서 봉송됐다.

베이징올림픽 성화는 이날 낮 2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1번 주자인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의 봉송을 시작으로 릴레이의 첫 발걸음을 떼었다.

올림픽 성화가 서울에서 봉송된 것은 1988년 서울대회와 2004년 아테네대회 때 이후 세번째다.
지난달 24일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터키 이스탄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오만 무스카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인도 뭘바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호주 캔버라, 일본 나가노를 거쳐 27일 새벽 서울에 들어왔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 속에 시민과 중국 유학생 등 수천여명이 행사장을 찾아 4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올림픽 성화를 지켜봤다. 최근 티베트 사태와 탈북자 북한 강제 송환 등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도 행사장 주변에 진을 치고 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한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가 시작되자 라진구 서울시 부시장과 김정길 KOC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이어 리빙후아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 부위원장이 첫 주자인 김정길 위원장에게 성화 불꽃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이 평화의 문 사이로 천천히 뛰어나오면서 봉송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평화의 광장 끝 무렵에서 두번째 주자인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에게 성화의 불꽃을 이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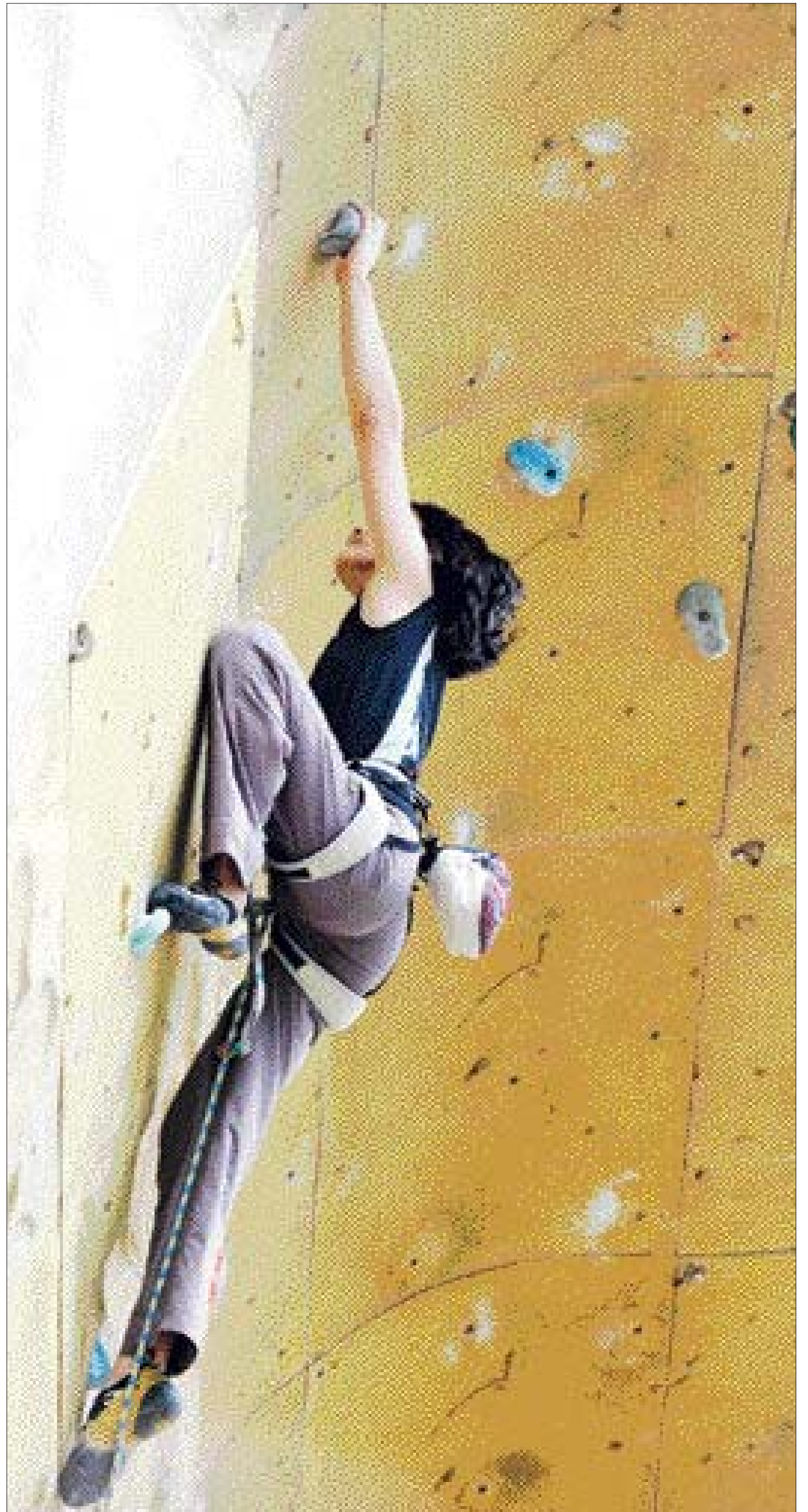
성화는 테헤란로를 따라 강남역 네거리까지 간 뒤 우측으로 돌아 한남대교를 건너 장충단공원 쪽으로 향했다. 국립극장 앞에서 1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 성화는 다시 동대문을 거쳐 청계천을 따라 광화문에 도착했고 광화문 바로 앞에서 유턴해 최종 도착지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들어섰다.

거리는 22km 가량이며 봉송주자는 80여 명이였다. 마지막 주자는 서울올림픽 개막식 '굴렁쇠 소년'으로 유명한 윤태웅 씨가 맡았다.

서울광장에서 성화 점화 등 각종 행사를 마친 올림픽 성화는 28일에는 북한 평양에서 봉송을 하게 되며 베트남 호치민, 홍콩, 마카오를 거쳐 중국으로 넘어가 올림픽 개막일인 8월8일 베이징에 들어가기까지 다시 긴 여정을 거치게 된다.
/연합뉴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굴렁쇠 소년'으로 이름을 알린 윤태웅씨가 27일 오후 베이징 올림픽 성화를 들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 암벽 '스파이더 걸' 27일 광주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에서 열린 '광주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 참가한 사 슨(총북 운동중3)양이 암벽 상당 부분을 힘차게 오르고 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100여명이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실책 3개로 자멸

SK에 3-4 역전패...3연패

윤석민 호투 불구 또 패전

'실책 3개, 팀은 3연패' KIA 타이거즈가 27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윤석민의 호투에도 잇따른 실책으로 3-4로 역전패당하며 3연패에 빠졌다.

KIA는 1회부터 공격에 기세를 올리며 쉽게 승리를 결정 짓는 듯했다. 선두타자 이용규의 2루타에 이어 김원섭, 장성호, 최희섭의 연속 안타가 터지면서 KIA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3점을 뽑았다.

SK의 선발 이한진은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KIA는 무사 1루에서 바뀐 투수 송민범 공력에 실패해 추가 점수를 얻지 못하면서 확실한 기선 제압에 실패했다.

1회 3점을 뽑은 KIA는 2사 3루에서 3루수 이현권이 박재홍의 땅볼을 빠뜨리면서 실책으로 빠뜨린 1점을 내줬다. 3회에는 선발 윤석민이 박재상과 정근우에게 연속으로 2루타

를 내주면서 3개의 안타로 3-3 동점을 허용했다.

5회에 또다시 나온 실책은 역전의 빌미가 됐다.

SK는 5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조동화가 2루수 실책으로 1루를 밟으면서 득점 기회를 잡았다. 조동화는 이진영의 결승타로 홈을 밟으며 3-4로 승부를 뒤집었다.

실책으로 자멸한 KIA는 6회 무사 1루에서 터진 최희섭의 병살타로 연패 탈출 기회를 놓쳤다.

'비운의 에이스' 윤석민은 7이닝 동안 8피안타 1사사구 6탈삼진으로 4실점(2자책)하면서 호투했지만, 수비와 타선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서 또다시 패전투수의 명예를 썼다. SK는 발 빠른 투수교체가 작중하면서 KIA와의 3연전에서 3승을 챙기며 파죽의 6연승을 이어갔다.

한편 삼성 라이온즈는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17안타를 앞세운 삼성이 17-3으로 롯데의 기세를 꺾었다.

대전 구장에서 벌어진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는 한화가 클락과 김태균의 홈런으로 4-3 역전승했다. LG 트윈스와 우리 히어로즈의 잠실경기는 역전과 역전을 거듭한 끝에 8-7 LG의 승리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16강행

대통령배고교야구

광주일고가 제42회 대통령배고교야구 대회에서 마산 용마고를 7-1로 물리치고 16강에 안착했다.

지난해 우승팀 광주일고는 27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용마고와의 경기에서 5타수 2안타 3타점으로 공격을 이끈 4번 조영선의 활약으로 10개의 안타로 7점을 뽑으며 승리를 결정지었다. 선발로 나온 양영웅은 5이닝동안 2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굳게 지키며 승리투수가 됐다.

광주일고는 29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구리 인창고와 8강행 티켓을 놓고 경기를 벌이게 된다.

한편 부전승으로 16강에 진출한 광주진흥고는 28일 오전 10시 목동야구장에서 서울 중앙고와 첫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계 전문가인
특별리 회원권
최저 '특별리 회원권'이 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한 경기를 할 모어레포츠타운으로 확장예정 하였습니다.
승수에 일지일 대한민국 최고의 거점소가 되었습니다.
문의 (062)351-0095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영 3위로 '미끌'

LPGA 인터내셔널 프로암 3R

김영(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탠퍼드 인터내셔널 프로암 셋째날 선두자리를 넘겨 줬다.

김영은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페어폰트 턴베리 아일랜드골프장 소퍼코스(파71·6천244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바디는 1개에 그치고 보기 3개를 쏟아내는 바람에 2오버파 73타를 쳤다.

전날 단독 선두였던 김영은 사흘동안 5언더파 207타를 적어내며 공동 3위로 내려앉았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퍼트 난조 속에 1타를 줄이는데 그쳤지만 김영의 부진을 틈타 중간합계 7언더파 205타로 2타차 선두로 나섰다.

허석호 日투어 우승

쓰루야 오픈...김경태 준우승

허석호(35·크리스탈벨리)가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쓰루야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허석호는 27일 일본 효고현 아마노하라골프장(파71·6천770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로 우승했다.

2006년 6월 미즈노 오픈 우승 이후 1년 10개월만에 우승컵을 품에 안은 허석호는 JGTO 통산 승수를 7승으로 늘렸다.

김경태(22·신한은행)도 마지막날 5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두르며 11언더파 273타로 준우승을 차지해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있음이 알려졌다.

김형성 생애 두번째 우승

KPGA 토마토 오픈 최종



'미남 골퍼'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사진)이 1년 6개월만에 생애 두번째 우승을 일궈냈다. 김형성은 27일 제주 세인트골프장(파72·7천466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아투어 토마토저축은행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오버파 290타로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 6천만원을 받은 김형성은 상금랭킹 2위(9천713만원)로 올라섰다.